

생선 썩는 냄새를 맡아라, 미술관에서

August 31, 2016 | 심혜리 기자



이불의 '장엄한 광채'.

아트선재제공

생선 썩는 냄새를 맡아라, 미술관에서

아트선재, 김소라 등 여성작가 3인 작품전
이불 '사이보그'·정서영 '전망대' 선보여

서울 소격동 아트선재센터에는 조기 98마리가 전시장 벽면에 붙어 썩어가고 있다. 미술가 이불이 20년 만에 다시 선보이는 작품 '장엄한 광채'다.

아트선재센터가 열고 있는 소장품전 '커넥트1: 스틸 액츠'에서 볼 수 있다. 센터의 역사와 소장 작품에 대한 연구인 '커넥트' 시리즈의 첫번째 전시로 김소라, 이불, 정서영 등 주목받는 3명의 여성 예술가가 참여했다. 전시명 '스틸 액츠(still acts)'는 멈춰 있지만 동작으로 명명할 수 있는 무용 단어라고 미술관 측은 설명했다.

1991년 지하문갤러리에서 처음 발표되고 1995년 아트선재센터에서 선보였던 이불 작가의 '장엄한 광채'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서히 부패해 가는 생선의 모습과 냄새를 제시하는 작업이다. 미술관마다 손을 내저어 지난 20년간 국내에선 다시 발표되지 못했던 작품이다. 구슬과 스타플 등으로 화려하게 장식된 조기들은 한 마리씩 비닐백에 담겨 벽에 나란히 붙여 있다. 습기를 제거하고 부패를 늦추는 포타시움을 생선과 함께 비닐에 넣었다. 전시장 내 악취를 흡수하기 위한 환풍구도 설치했으며 관람객은 작품 주변을 던여놓은 비닐 속으로 들어가 볼 수 있다.

이불 작가는 생선을 여성 상징화 생물로 본다. 죽은 물고기에서 비늘을 꽃아 구슬로 장식한 행위는 한국의 경제성장의 이면에 가려진 여성 노동자들의 가내수공업 등을 의미한다. 물고기가 썩어 들어가 체액이 흘러나오고 비린내가 위취로 변하면 작품은 시각 중심의 미술사에서 추방당한 또 다른 감각인 후각을 불러들이게 된다. 이불은 "현대미술에서 어떻게 다른 감각기관에



정서영의 '모르는 귀'.

한 시각의 특권화가 이뤄졌는가에 대해 다루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이 작품은 1997년 뉴욕 현대미술관(MoMA)에 설치됐다. 약취로 개막 직전에 철거되기도 한 역사를 갖고 있다. 또 이불은 이번 전시에서 1998년 아트선재센터에서 전시했던 기념비적인 작품 '사이보그'를 다시 내놓았다.

독창적 조형 세계로 주목을 받아온 정서영 작가는 1999년 전시했던 '전망대'를 다시 선보인다. 수장고 속에서 나무기둥이 일부 훼손돼 작가가 직접 보수했다고 한다. 전망대로서 기능하지 못하는 전망대의 이미지는 언어의 기능을 뒤집어 익숙했던 사고체계로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한다. 작가의 2010년 퍼포먼스 '미스터 김과 미스터 리의 모험'에서 요괴가 되어가는 사람의 한쪽 귀도 단독 작품으로 나왔다.

김소라 작가는 2004년 김홍석과 가진 2인전 '안타르티카'에서 선보였던 '라이브러리'전을 재연한다. 작가가 지인들로부터 받은 책 100권의 문장들을 잇는 작업이다.

김성정 관장은 "이번 전시는 1995년 시작된 아트선재센터의 과거를 되돌아보고 이를 기록하는 과정에서 기획됐다"며 "전시라는 유틸리티를 넘어 1990년대 이후 한국 문화사와 일정 부분 맞닿아 있다"고 설명했다. 리노베이션 중인 아트선재센터는 별관처럼 사용해보던 한옥 건물을 중국계 작가 준앙의 작업으로 '패럴랙스 한옥'이라는 이름의 카페로 전환했다.

심혜리 기자 grace@kyunghyang.com